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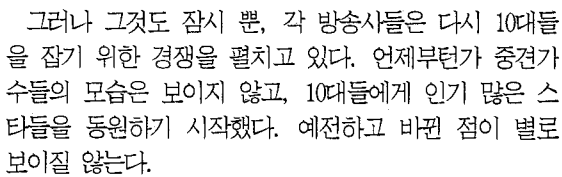


☐ 매체비평- 야누스적인 방송매체

청소년문화, 상업주의의 노리개인가

10대문화와 대중문화의 관계가 거론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10대들이 대중문화의 최대 고객임을 무말뚨할 필요도 없고, 그것을 좌지우지하는 독보적 존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음반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으며, 프로그램의 시청률을 거의 장악하고 있다. 이에 각종 매체들은 10대들을 잡기 위해 과다경쟁을 벌이기도 했다.

그러나 IMF 한파와 마녀사냥식의 검열로 인해 방송매체 속의 10대문화가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것이 현실적이다. 가요순위 프로그램이 폐지되는가 하면 10대들을 위해 만들었던 쇼프로그램이나 청춘드라마역시 예정보다 일찍 종료되리라. 한동안 가요프로그램에서는 10대뿐만 아니라 20, 30대도 음악을 공유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원로가수(?)들을 등장시키기도 했다. 또한 각 방송사는 IMF 한파와 불 개편을 방패로 삼아 흥미위주의 단편적 프로그램을(주로 10대를 위한) 폐지시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교양프로그램과 가족오락물을 강화시켰다.



오후방송이 시작할 때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닌 10대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방영한다. 연예 정보의 과잉 공급도 문제시 되고 있으며, 아무런 대안없이 무비판적으로 내보내는 가십성 정보는 10대들을 더욱 혼란 속으로 내몰고 있다. 또한 청소년 보호법 실행 이후 방송 프로그램도 생각해 볼 문제이다.

10대들은 방송사들의 전유물인가. 10대를 우려하고 대변해야 하는 믿음직한 어른들이 10대들의 눈으로 대중문화를 방황지우고 있으니 한심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10대문화가 건전하지 못하다는 기성세대의 의식부터 바뀌어야 한다. 그래야 10대문화가 더욱 다양해질 수 있다.

10대들에 대해 야누스적인 방송매체. 단지 그들의 높은 구매력과 시청률 때문에 10대문화를 마음대로 방황시키는 것은 그들의 문화를 더욱 왜곡시킬 수밖에 없다. 10대문화가 발전하려면 20·30대 문화가 동반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기성세대와 10대들의 끊임없는 대화 속에 올바른 미디어 정립을 기대해 본다.

〈김동혁 기자〉

문화단신

NANTA 98 대사나 노래를 배제하고 소리, 리듬, 비트, 움직임만을 소재로 한 새로운 개념의 장르인 NANTA 98이 동숭아트센터 동숭홀에서 공연된다. 오는 5월 3일까지 공연될 이번 공연은 일상의 소재(주방도구)를 통해 사물놀이 리듬을 재현하였다. 문의는 3673-4466이다.

장학제도 안내

- 장학별 총 배점은 100점을 만점으로 한다.
- 위 평가항목 배점표는 기본적용이며 특수계열인 예, 재능계열은 계열 특성상 대학장 및 학과장 재량으로 위 배점표를 기준으로 하여 정할 수 있음.

수원캠퍼스 학생처